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 1833-9030

TEL: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음 2월 28일)

제226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 서부 농업용수 공급 불편점 해소

군산·익산·김제·완주 등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을 예타조사 대상 확정 따라... 도, 사업 시행 예정

전북도는 군산·익산·김제·완주 등 도내 서부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농경지의 불편 사항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이 지난 4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고 2일 밝혔다.

전북도는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2017년부터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농업기반시설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재부 등의 부정적 입장으로 2018년까지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이 금강권역의 농업용수 공급 기반 확대 필요성과 그동안의 침수 피해 사례 등을 들어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이번 쾌거를 이루게 됐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은 기상변화 개발사업 구역의 영농불편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금강I 지구, 금강II 지구 사업 시행으로 금강의 풍부한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용수간선 체계는 구축하였으나, 개별 농경지까지 수로가 연결되지 않아 인근 지역 가뭄 발생 및 배수 지체 등 지역 주민의 영농에 심각한 불편이 있었다.



4·3 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개표 시연

회 관계자들이 개표 시연을 하고 있다.

또한 금강II 지구사업의 장기화(33년)로 인해 사업 초기 시행한 시설은 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있어 기반시설 정비도 필요하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은 경지 정리·재정리(7,912ha), 발기반 정비(849ha), 용수로 설치(141km)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토지 생산성이 증대되고, 농지 규모화 및 농기계 효율성 증가, 용·배수로 정비로 한발·침수 피해 예방 등 그간 불편했던 사항들이 해소되고 영농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 최재용 농축수산물품목장은 "이번 예타 선정은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큰 성과이고, 사업 시행을 통해 그간 불편했던 지역주민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도 택시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 최종 확정

시·군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적용

전북도는 2013년 3월 조정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택시요금을 2019년 4월 2일 10시 전라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기본요금 2,800원을 3,300원으로 500원을 인상(14.47%)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은 최근 6년간의 물가, 인건비 등 상승으로 택시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조합의 변경 신청에 따라 전북도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2km까지) 3,300원에 거리 137m, 시간 33초당 100원(중형택시 기준)으로 2013년 3월 이후 6년여 만에 조정됐다.

당초 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승객 감소, 정비료·보험료,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신청을 2017년 8월 전라북도

에 제출했다.

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였으나 최저 임금, 시외버스·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했다.

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영수지 적자에 따른 적정원가 산정, 타 시·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상황, 택시업계·종사자 및 승객의 이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했다.

현재 11개 광역시·도가 인상을 확정하였고 인상된 내역을 보면 서울·

인천은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나머지 9개 시·도는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며 전북도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 3,3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은 각 시·군 택시운송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요금인상을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서류검토 후 수리하게 되며 각 시·군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인상요금 적용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할증요율은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존과 동일하며 전주시는 지역별 특성, 운행형태 등에 따라 전주시장이 따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 정보 공유·노하우 전수

세계스카우트 이사회 참석차 한국 방문한 인사 초청 도, 소통의 시간 가져... "대회 성공개최 힘 보태 것"

전북도는 세계스카우트이사회(이하 세계이사회)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레오나르도(세계스카우트 이사, 코스타리카)와 닥터 아티프(아랍스카우트연맹 사무처장, 수단)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초청행사는 세계이사회가 세계잼버리 전반에 참여하고 있어 잼버리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심을 전하고 이들의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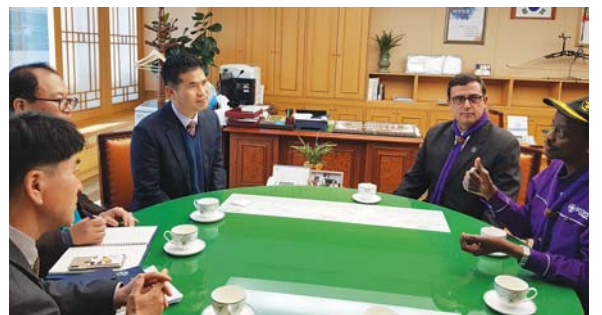
이들은 세계이사회 공식일정(4.4~4.7) 이전인 지난달 30일 일국해 이달 3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전북에 머물며 잼버리추진단을 찾아 미국 세계잼버리 준비사항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갖고, 스카우트지도자 교육현장과 잼버리 현장인 새만금 등을 방문한데 이어 마이산과 가위박물관, 청자박물관, 전통문화예술 등 전북의 우수 자원과 연계한 관광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특히, 2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는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 때 세계무대에서 활동한 이원택 정무부지사가 함께 해 그 당시 활약을 회고하면서 이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리를 함께한 세계이사회 주요 인사들은 "광활한 새만금 대지에 개최되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회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오는 4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이사회는 8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개최되는 제24차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내년도 이집트 카이로의 세계스카우트총회 안전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미국 세계잼버리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대한 개최일정, 과정활동 등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2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세계스카우트 이사회 주요 인사들이 이원택 정무부지사 등과 함께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협력을 약속했다.

### 매일 INDEX

3면 - 추경안 이달 25일 전후 국회 제출

4면 - 고령토 채굴신청에 주민 반발 거세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